

# 광주형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 동력 확보

### 국가균형발전위 의결...정부 지원 근거 마련·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근로자 주거·교통·교육·체육시설 등 재정적 지원도 탄력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 사업이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심의·의결됐다. 이에 따라 국가사업으로서 정부 지원의 근거 마련과 함께 행정안전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서 면제되면서 강력한 추진 동력을 얻게 됐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국가균형발전위원회는 이날 세종특별자치시청에서 열린 제14차 국가균형발전위원회에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 추진계획'을 안건으로 상정하고 심의·의결했다.

이날 완성차공장 사업 추진계획은 기획

재정부, 교육부, 행정안전부, 산업자원부 등 13개 중앙부처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이 모인 가운데 의결됐다. 이번 의결로 완성차공장 합작법인 설립을 위한 국가균형발전 특별법 개정,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 등 법·제도적 지원에 힘을 받게 됐다.

또한, 행정적 지원과 근로자들의 실소속 향상과 삶의 질 개선을 위한 주거·교통·교육·체육시설 등 근로자 복지 프로그램 마련을 위한 재정적 지원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광주시가 빛그린 산단 내에 건립할 완성

차공장에 투자하는 규모는 483억원으로,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에 해당된다. 지자체 재정투자 규모가 300억원이 넘는 경우 정부의 '지방재정 투자심사' 대상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지방재정 투자심사가 통상 3~4개월이 소요된다는 점을 감안할 경우 사업 추진 속도가 늦어져 올 상반기 합작법인을 설립하려던 광주시의 계획에 차질을 빚을 것으로 우려됐었다.

하지만, 이날 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지방재정 투자심사 면제와 함께 정부 지원의 근거를 마련하면서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이 제 속도를 낼 것으로 보인다. 국가균형발전특별법은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차원에서 중앙부처와 협의를 완료된 사업은 지방재정 투자

심사를 면제할 수 있도록 규정돼 있다.

이병훈 광주시 문화경제부시장은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의결을 통해 중앙정부의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사업에 대한 뜨거운 관심과 지지를 확인했다"면서 "완성차공장 사업이 한국경제의 체질을 바꾸고 경쟁력을 높이는 국가적 사업인 만큼 지속 가능한 경쟁력 있는 사업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형 일자리 완성차공장 설립사업은 합작법인이 빛그린산단에 연 10만대 규모의 생산라인을 구축해 경형스포츠유틸리티차량(SUV)을 현대자동차로부터 위탁 받아 생산하고, 이를 위해 정규직 1000여 명을 고용하는 내용으로 추진되고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송정역~광주공항 주변 연결 도로 개설

### 주한미군 공여 주변지역 해체 교통 분산·지역발전 기대

송정역과 광주공항 주변을 연결하는 도로가 개설된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그동안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으로 지정돼 수십년 간 개발이 제한된 광산구 도산동 대주파크빌 아파트 인근에 연장 420m, 폭 30m 규모의 도로가 개설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원특별법'에 따라 전체 사업비의 50%를 국비로 지원받아 총 사업비 70억원이 투입된다.

주한미군 공여구역은 대한민국과 미국 간 상호방위조약 및 한·미 행정협정(SOFA협정)에 따라 주한미군에 제공한 시설 및 구역을 지칭한다.

광주지역 공여구역은 광산구 송정동, 도산동 및 신흥동 일원 12.1㎢가 해당된다.

광주시는 도로 개설을 위해 이달 착수

한 시설계용역을 올해 말까지 완료한 뒤 토지 등 지장물 보상을 실시하고, 공사는 내년 초 착공한다. 준공은 2022년 예정이다.

광주시는 이번 도로 개설로 지역 균형발전과 교통량 분산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문분수 광주시 도시재생공장은 "도로 개설이 완료되면 KTX 투자선도지구로 개발중인 송정역 주변과 광주공항 주변이 직접 연결돼 광주시 주요 교통거점 간 접근성 개선효과와 낙후된 도산동 일원의 균형발전이 이뤄질 것이다"면서 "송정역 주변으로 집중된 교통량 분산을 통해 교통체증에 따른 시민 불편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광주시는 앞서 주한미군 공여구역 주변지역 지원사업으로 2009년부터 2016년까지 사업비 223억원을 들여 송정우회도로개설공사(연장 980m, 폭 35m)를 한 차례 추진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수영대회 기념주화 인기 예약 접수자 발행량 초과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되는 기념주화의 예약 접수가 최대 발행량을 초과했다. 이에 따라 예약 접수자를 대상으로 추첨을 통해 구매자를 결정하게 됐다.

23일 광주세계수영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한국은행이 광주수영대회를 기념하기 위해 발행하는 기념주화의 구매 예약 접수자가 발행량인 1만장을 넘어섰다.

기념주화는 지난 9일부터 22일까지 14일간 예약 접수를 받았다. 접수자가 발행량인 1만장을 넘어선 다음날 4일 컴퓨터 프로그램 추첨을 통해 당첨자를 결정한다. 추첨은 한국은행, 조폐공사, 경찰 등이 입회한 상태에서 진행되며, 당첨자 발표는 6월 7일이다. 당첨된 예약 구매자는 7월 11일 접수한 지정 은행을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배송으로 주화를 배부 받게 된다. 한편, 수영대회 기념주화는 앞면에 수영(접영)선수가 평화의 물결을 가르며 미래의 꿈을 향해 힘차게 도전하는 모습이 표현됐고, 뒷면은 대회 슬로건(DIVE INTO PEACE)과 로고가 담겨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수영대회 성공 기원 악수  
이용섭 광주시장과 코넬 마르쿨레스쿠 국제수영연맹(FINA) 사무총장이 23일 오후 시청 5층 브리핑룸에서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관련 기자회견을 마치고 악수하고 있다.  
/최현배 기자 choi@kwangju.co.kr

# 광주시 인권지표 크게 좋아졌다

### 광주인권현장 연계 50개 평가 비정규직 감소 등 41개 개선

광주시 인권지표가 대폭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23일 광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광주인권현장과 연계한 50개 인권지표를 평가한 결과 전년보다 41개(82.00%) 지표가 개선됐다.

분야별로는 '먼저 행복한 삶을 실현하는 도시' 분야에서 11개 지표 중 10개 지표가 개선됐다.

전체 취업자 수 대비 비정규직 비율은 2017년 36.90%에서 2018년 33.00%로 3.9%포인트 줄어든 반면 사회적일자리 수는 34.00%에서 36.15%로 2.15%포인트 늘었다.

또 인구 10만명당 자살률은 전국 평균 24.3%보다 낮은 22.6%를 기록했고, 스트레스 인지율도 전년보다 1.1%포인트 낮아졌다.

이외에도 ▲노인차매 조기 검진 수검률(1.1%포인트 ↑) ▲공공인대 주택비율(0.2%포인트 ↑) ▲장애인 인권침해 구제건수(1.08%포인트 ↑) 등 10건 전년 대비 좋아졌다.

사회적 약자와 함께 하는 따뜻한 도

시 분야에서는 전체 16개 지표 중 13개 지표가 나아졌다.

2017년 18.05%, 2018년 20.88%로 꾸준히 증가했고, 위기청소년통합지원은 23.9%에서 29.4%로 5.5%포인트 늘었다.

쾌적한 환경과 안전한 도시 분야에서는 9개 지표 중 6개 지표가 개선됐다.

탄소은행 지원금액이 증가(71.2→86.4%)하고 도시공원 지정면적 대비 공원 조성 면적이 확대(43.8→43.9%)됐으며, 부적합 식품 검사율(0.16%→0.08%)도 대폭 개선됐다.

이 밖에도 자유롭게 소통하고 참여하는 도시 분야에서 5개, 문화를 창조하고 연대하는 도시 분야에서 7개 지표가 나아졌다.

인권지표 평가는 2012년 제정·선포한 광주인권현장(5대 분야, 18대 실천과제, 50개 인권지표)을 구체적으로 실천하기 위해 인권개선 정도를 자체 측정하는 것으로 지난 2013년부터 매년 시민에게 공개하고 있다.

인권지표 평가결과는 광주시 민중인권포털(<http://gijhr.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최권일 기자 cki@kwangju.co.kr

# 수영대회 기간 인천공항~송정역 KTX운행 확정

국무조정회의서 최종 결정  
임시 상·하행 7편 편성

2019 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기간에 인천공항에서 광주송정역을 오가는 KTX 임시편 운행이 확정됐다.  
(광주일보 5월21일 1면)

23일 2019광주세계수영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에 따르면 전날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 담당 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실무회의를 열고 KTX 임시편(인천공항-송정역)을 7편(인천공항→송정역 4편·송정역→인천공항 3편) 편성하기로 최종적으로 확정했다. 이에 따라 인천공항을 통해 입국하는 광주수영대

회 참가 선수단 수송에 승용이 트이게 됐다.

인천공항~광주송정역 간 KTX 임시편을 편성하려면 연결편인 인천-용산 노선을 신설해야 한다. 이 때문에 노선이 겹치는 공항철도 측의 운행 횟수 감축이 불가피해 논의에 어려움을 겪었다. 특히, 노선 신설에 따른 KTX 증편과 신호체계 정비

등에 들어가는 비용, 공항철도 노선 감축으로 인한 손실분 등을 누가 부담하느냐를 놓고도 이견이 계속됐다.

하지만 이날 조정회의에서 KTX 증편에 들어가는 예산 5억원을 코레일이 수영대회 후일 형식으로 부담하고 공항철도 측도 한발 양보하면서 인천공항~송정역 KTX 운행이 최종 확정됐다. 인천공항에서 송정역을 오가는 KTX는 선수단 입국이 시작되는 7월 초부터 운행될 예정이다.

/김형호 기자 khh@kwangju.co.kr

## 태양광발전소 부지·시설 고가매입

당사 및 당사관련사업소에서는  
소형(100kW~1,000kW) 중형(1,000kW~3,000kW) 대형(3,000kW이상)의  
태양광발전시설을 대량 매입증입니다

● 매매대상 ●

- 개발행위 허가전 발전소
- 개발행위 허가중 발전소
- 현재 공사중인 발전소
- 현재 운영중인 발전소
- 1차 FIT 종료중 발전소
- 곤충사육장 + 태양광
- 버섯재배사 + 태양광

당사에서는 **개발행위**(건축물 위 공작물 축조신고)를 **무료**로 해드립니다. (\*건축물 구조진단 비용은 유료)

**환경과에너지종합기술단(주)**  
전기공사업면허 광주 제00988호

**상담** 전국대표 1544-1926  
010-7614-1055  
*선로 걱정 마시고 전화주세요!*